# UAE-한국 친선협회 Al-Hammadi 협회장이 평가하는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Emirati-Korean Friendship Society(EKFS)는 UAE와 한국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 양국의 문화 체험 행사, 영상 콘텐츠 상영, 대표단 방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전시관을 운영하여 한국 도서를 소개하는 등 한국문화와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EKFS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이미 UAE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과 UAE는 충분한 문화적 공감대를 끌어낼 만한 유사점을 갖고 있기에 수 있어 한국 콘텐츠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EKFS를 설립한 Humaid Al-Hammadi 협회장 인터뷰를 통해 EKFS의 주요 활동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평가, 한국 콘텐츠가 UAE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봄

## 협회와 주요 활동 소개

### Q. Emirati-Korean Friendship Society와 협회장님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mirati-Korean Friendship Society(아랍에미리트-한국 친선협회, 이하 EKFS)의 협회장인 휴메이드 알 함마디(Humaid Al-Hammadi)입니다. EKFS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두 공동체 사이에 더 많은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2012년에 출범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제가 2002년에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감명을 받아 2010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두 달간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랍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다 EKFS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문화를 서로 소개할 수 있도록 각종 포럼에 참석하여 연설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아부다비에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주간과 영화제에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EKFS는 양국 문화교류의 힘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 연구와 방송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꾸준히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 Q. 협회에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EKFS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 ✓ 문화 워크숍: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한국 서예와 한복(전통의상) 체험을 하고 김치 만드는 법 등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매 사냥을 체험하고 아랍 커피와 헤나(문신) 예술 등에 대해 소개를 받습니다.
- ✓ 언어 교환 프로그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KFS는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언어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참가자들은 상호작용하며 아랍어 또는 한국어 말하기를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 ✓ 영화 상영: 아랍어 자막이 있는 한국 영화와 한국어 자막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서로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토론 시간을 통해 상호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공동 축하 행사: 아랍에미리트의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나 한국의 추석 등 양국의 전통 축제를 함께 축하하며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 ✓ 대표단 방문: 학생, 비즈니스 전문가, 예술가를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EKFS는 중동 최대의 도서 전시회 중 하나인 '2023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도서 작품들을 소개하였고,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공기놀이 등의 게임을 소개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랍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작품들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 여러 출판사들로부터 한국 작품을 번역하여 출판하자는 협력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EKFS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잘못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에 대해 한국인으로 잘못 표기한 신문 기사를 바로잡는 일이 그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협회는 모든 교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 가교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아랍에미리트 문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 Q. 문화교류 외에도 어떠한 협력을 진행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KFS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문화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술, 안보, 의료 등 양 국가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협의하며,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산업만큼이나 의료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안내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의료기관 투어 행사에 아랍에미리트의 뉴스에이전시인 아부다비 미디어(Abu Dhabi Media)와 알칼리지 신문사(Alkhaleej Newspaper) 등의 언론 매체 기자단을 구성하여 한국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가이드를 따라 건강검진, 국제진료, 암센터 등을 투어하고 최상의 의료 시스템과 함께 정확하고 수준 높은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러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함께 방문한 언론 매체와 협의하여 의료관광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Q.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시청각 콘텐츠들은 많은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는 시청자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드라마 속의 가슴 아픈 로맨스, 스릴러물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액션, 시트콤의 가슴 훈훈한 유머 등 한국 콘텐츠는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리고 감정의 깊이로 많은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에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 드라마와 판타지 로맨스부터 단편 코미디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범죄 스릴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다양성을 통해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취향과 분위기에 빠져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Q.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는 아랍에미리트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음악과 드라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KFS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할 때 주로 K-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족 관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영향력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K-팝은 중독성 있는 곡과 인상적인 안무로 활발한 팬 문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에서 전달되는 긍정적인 가치와 메시지는 아랍에미리트의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이벤트, 언어 수업, 문화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협회장님은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도 전인 2000년대부터 한국을 좋아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K-팝이나 드라마 외에도 우수한 분야가 많고, 그 모든 것들은 한국 역사와 그 자체의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문화에 매료된 저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 또한 한국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알게 된 놀라운 인물과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아랍어로 이미 출간했고, 또 다른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한 책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국의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한국 밖의 독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의지로 완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윤동주 시인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조국 해방에 기여한 위대한 역사는 어느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인물과 역사적인 내용들을 중동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더 많은 책을 출판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국의 문화 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EKFS 협회장으로 활동해서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로서, 한국 콘텐츠의 더욱 가치를 높이고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한국 콘텐츠 기업에의 조언

### Q. 한국 콘텐츠 개발자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풍족한 수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콘텐츠 개발자들이 협업한다면 한국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현지 취향에 맞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과 비즈니스 벤처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콘텐츠 개발자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하여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 Q. 한국 콘텐츠 업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가치를 존중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는 잘 정의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콘텐츠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지방 당국과 협력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규제 환경을 성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규제들은 토후국 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출에 대한 지원책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관련 기관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아랍에미리트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독특한 캐릭터와 관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경우, 한국 콘텐츠 개발자는 폭넓은 청중의 공감을 불러들이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환경, 테마, 캐스팅을 아랍에미리트 현지 요소들과 통합하면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아랍에미리트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허브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성공하면 다른 중동 아랍 국가에서도 쉽게 콘텐츠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출 준비를 탄탄히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EKFS의 협회장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두 국가는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국가 발전 측면에서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사막이라는 삭막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에 국제 허브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낮은 경제 수준이 40년도 채 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언어 측면에서도 양 국가 모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중시하여 어른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가는 충분한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한국 콘텐츠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기를 끄는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비추어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콘텐츠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한국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문화교류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민 사이에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공동제작 및 이니셔티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EKFS는 이러한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 뵐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우정은 문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협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우리 협회도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는 '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